

교회의 속성에 대한 개혁신학적 이해: 은사를 중심으로

이신열 (고신대학교)

1. 들어가는 말

21세기 개혁신학의 교회론은 어떤 흐름 속에 놓여 있는가? 20세기를 지배했던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은 신학적 성찰의 부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개혁신앙의 교회론을 향해서 논제로서 은사를 제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오순절 및 은사주의 신학자들에게 은사는 교회론과는 동떨어진 채 개별 신자의 삶 속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차원에 머무른다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은사에 관해서 오순절 및 은사주의자들, 그리고 이들의 사고에 동의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상당한 분량의 저술을 남겼지만 이를 교회론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글은 그리 많지 않다.¹⁾ 이러한 흐름에 변화를 초래한 계기는 다양한 은사 가운데 예언에 대한 관심의 증대라고 볼 수 있다. 방언은 개인적 차원이 두드러진 은사이지만, 예언은 교회의 모든 신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은사이기에 더욱 그러하다.²⁾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개혁신학이 어떤 관점에서 성경적 은사를 이해하고 이를 교회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인데 교회론은 방대한 주제이므로 여기에서는 교회의 속성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제한하여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칼빈과 바빙크, 그리고 베르카우어를 위시한 다양한 개혁신학자들의 견해를 비교하는 가운데 교회의 속성과 은사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2.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교회의 속성

네덜란드의 대표적 개혁신학자 바빙크는 1888년에 캠펠 신학교의 학장으로 취임하면서 교회의 보편성에 관해서 강연함으로써 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표명하였다.³⁾ 이 연설에서 바빙크는 교회의 보편성을 로마 가톨릭의 지역적, 공간적 관점에만 제한시키지 아니하고 보편종교로서 기독교라는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보편성을 전통적 견해와는 다른 시각에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마이클 호튼 (Michael Horton)은 교회의 속성을 언약론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시도를 선보이기도 하였다.⁴⁾ 그는 교회의 속성이 하나님의 언약과 이에 대한 인간의 진실한 반응이라는 성경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면서 이 주제가 개혁신학의 교회론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재점검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특히 로마 가톨릭이 더욱 강조해 왔으며 벌코프에 의해서 간과되어 왔던 사도성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별도의 장 (chapter)을 할애하고 이를 상세하게 논의한다. 여기에서 은사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전면부에 부각시키는 가운데 다양한 현대신학자들의 견해

1) Max Turner, *The Holy Spirit and Spiritual Gifts: Then and Now* (Carlisle: Paternoster, 1996), 261-285.

2) Wayne A. Grudem, *The Gift of Prophecy in the New Testament and Today* (Westchester, IL: Crossway, 1988).

3) Herman Bavinck, *De katholiciteit van het Christendom en de kerk* (Kampen: Zylsma, 1888). 이에 대한 최근의 해설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Barend Kamphuis, "Herman Bavinck on Catholicity," *Mid-America Journal of Theology* 24 (2013): 97-104.

4) Michael Horton, *The Christian Faith: A Systematic Theology for Pilgrim's on the Way* (Grand Rapids: Zondervan, 2011), 828-903.

를 속지함과 더불어 로마 가톨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속성 이해를 전개하고자 하였다.⁵⁾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실천신학교수이었던 에드먼드 클라우니(Edmund P. Clowney)는 교회의 속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속성의 기본적 개념을 상술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은사와 4가지 속성과의 관계를 구체화시키면서 20세기 로마 가톨릭 신학의 속성 이해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혁신앙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비판하였다.⁶⁾ 최근의 개혁신학에 요구되는 것은 교회의 속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사도신경과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381)에 나타난 전통적 접근 방식과 가르침을 중시하면서도 20세기 신학에서 성령론의 돌풍을 불러일으킨 오순절 운동과 은사주의 신학이 강조해왔던 은사의 중요성을 더욱 성경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⁷⁾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은사주의적 은사 이해에 나타난 비성경적 견해를 비판하고 이와 더불어 속성론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의 이해와 차별화되는 교회론을 바탕으로 개혁주의적 은사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교회론에서 은사의 역할

3.1. 오순절 운동과 은사주의 신학에서의 은사의 역할

20세기 초에 시작된 오순절 운동과 1960년대 이후로 로마 가톨릭을 포함한 개신교 전통교회 속으로 파고 들어온 은사주의 운동에서는 공통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강조되었다. 초기 또는 고전적 오순절 운동 (the early or classical Pentecostal Movement)에서 성령세례 (the baptism with the Spirit)는 초자연적 은사를 받기 위한 초기증거 (the initial evidence)로서 인식되었는데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방언 (speaking in tongues) 이었다.⁸⁾ 물론 다른 은사들이 완전히 간과되거나 배제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고전적 오순절 운동에서 방언이 가장 대표적인 은사로서 각광을 받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신오순절 운동 (Neo Pentecostal Movement) 또는 은사주의 운동 (Charismatic Movement)은 다양한 은사에 집중적인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세기 성령론 이해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해는 성령론의 한 축을 형성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은사주의적 은사 이해는 사실상 이를 자연적 은사와 초자연적 은사로 나누는 가운데 성경적 은사 이해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⁹⁾

5)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권수경 · 이상원 옮김, 『조직신학』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829-33. Horton, *The Christian Faith*, 872-903.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언약을 상기키는 제목이 설정되었다: “사도성: 수혜자와 제공자 사이의 교제 (Apostolicity: A Fellowship of Receivers and Deliverers)”.

6) Edmund P. Clowney, *The Church*, 황영철 옮김, 『교회』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8). 성령의 은사와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는 5, 16, 17장과 7, 8장에 걸쳐 각각 논의된다.

7) 많은 신학자들이 신약 시대의 교회 또는 사역이 은사적 (charismatic) 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서 개혁신학적으로 더욱 상세한 조망이 요구된다. Sinclair Ferguson, *The Holy Spirit, Contours of Christian Theology*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96), 241; James D. G. Dunn,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Grand Rapids: Eerdmans, 1998), 552-561; Donald MacLeod, *The Spirit of Promise*, 지상우 역, 『성령세례와 개혁주의 성령론』 (서울: 여수론, 1988; reprint 2004), 69-81.

8)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의 역사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Anthony C. Thiselton, *The Holy Spirit - In Biblical Teaching, through the Centuries, and Today* (Grand Rapids: Eerdmans, 2013), 327-339, 366-372.

9) 은사주의적 은사이해에 대한 대표적인 저술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Arnold Bittlinger, *Gifts and Graces*, 정인찬 · 조원길 공역, 『은사와 은혜』 (서울: 기독지혜사, 1982).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은사를 개괄하는 대표적인 글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Richard B. Gaffin, Jr., *Perspectives on Pentecost*, 권성수 역, 『성령 은사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3.2 개혁신학의 교회론에 나타난 은사의 역할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령의 선물 또는 은사를 아주 광범위하게 이해하였고 교회가 아닌 세상에도 하나님의 은사가 섭리적인 차원에서 주어진다고 믿었다.¹⁰⁾ 은사의 의미는 구원론과 관련해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한 장식 또는 영광에 해당된다는 사실에서 발견된다.¹¹⁾ 이런 이유에서 칼빈은 원리적으로 교회에 성령의 새로운 은사가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개방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약시대 이후 역사가 진행되면서 은사가 실제로 교회에 주어지는 횟수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교회에 주어진 은사들이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칼빈은 은사가 복음을 장식하고 그 영광을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를 ‘성령의 가시적 은혜들’(gratiae visibiles spiritus sancti)이라고 불렀다.¹²⁾ 그러나 인간의 야망이나 욕심 때문에 은사가 잘못 사용되었을 때 교회가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의 통치를 받는 곳이라는 성경적 진리가 왜곡될 위험이 점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은사는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라고 칼빈은 생각했다.¹³⁾ 이러한 은사 이해는 사실상 칼빈 이후 개혁신앙의 은사에 대한 이해를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은사중지론(cessationism)의 입장은 개혁교회의 은사 이해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한 침묵 또는 최소화된 고찰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바빙크는 개혁신학에 있어서 은사를 교회론적으로 이해하고 교회의 본질에 대한 고찰에서 이를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¹⁴⁾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은사는 더 이상 집중적으로 논의되지 못했으며 논의 자체가 성도의 교제와 이에 근거한 교회의 통일성의 차원에만 국한되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의 영향아래 은사의 교회론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많은 신학적 토론이 20세기 후반에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은사의 성경적 의미를 재고찰하고 이를 개혁주의 교회론의 논의 대상으로 삼는 시도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¹⁵⁾ 오순절 및 은사주의 신학의 은사에 대한 견해를 올바른 성경해석을 통해서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21세기 개혁신학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작시키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은사의 관점에서 교회의 속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0) 이신열, “부에 대한 칼빈의 이해,” 『개신과 부흥』 15 (2015): 89-94.

11) John Calvin,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 Wilhelm Baum, Eduard Cunitz & Eduard Reuss, 59 vols. (Brunsvigae: C. A. Schwetschke, 1859-1900), vol. 48. col. 251 (행 10:46 주석). 이하 CO로 약칭함. 칼빈의 은사 이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Leonard Sweetman, Jr., “The Gifts of the Spirit: A Study of Calvin’s Comments on I Corinthians 12:8-10, 28; Romans 12:6-8; Ephesians 4:11,” in David E. Holwerda (ed.), *Exploring the Heritage of John Calvin: Essays in Honor of John Brat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6), 273-303; 이신열, “칼빈의 은사 이해,” 『성경과 신학』 제 53 권 (2010): 79-107.

12) CO 48, 183 (행 8:17 주석).

13) Werner Krusche,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7), 331-332.

14) Herman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IV*, 박태현 역, 『개혁교의학 4』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353-354.

15) 이런 토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Wayne Grudem (ed.), *Are Miraculous Gifts for Today? Four Views*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96).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클라우니는 은사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개혁신학적 이해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각주 7). 은사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의 경우 성령론적 영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교회론적 차원으로 옮겨 가도록 만든 시도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회론적 차원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은사의 관점에서 살펴본 교회의 속성

4.1. 예비적 고찰

교회의 속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제 중의 하나는 네 가지 속성의 순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 (381)에 기록된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의 속성들을 교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간주된다.¹⁶⁾ 판넨베르크 (Wolfhart Pannenberg)는 이 속성들을 고찰함에 있어서 통일성을 중심으로 나머지 세 가지 속성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주어지는가에 집중한다.¹⁷⁾

이 단락에서는 교회의 속성과 은사를 고찰함에 있어서 은사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고취시키기 위해서 사도성, 보편성, 통일성, 그리고 거룩성의 순서를 취하고자 하는데 이는 은사의 정의, 기원, 기능, 그리고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¹⁸⁾ 첫째, 은사의 정의는 먼저 은사의 구원론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은사의 교회론적 적용에 앞서 구원론적 차원의 논의는 필수적인 것이다. 에베소서 4장은 구원의 진리가 교회에서 증거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사도를 은사로 허락하시고 세우셨다고 증거한다. 이런 이유에서 은사의 구원론적 정의는 교회의 속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사도의 역할과 이에서 비롯되는 사도성을 제일 먼저 논의의 대상으로 채택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은사의 기원에 관한 고찰은 만유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보편성이 은사의 기원이며 이에 근거해서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에 주어졌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은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충만하고 보편적인 선물로서 이는 구체적으로, 복음전파의 선교를 통한 교회의 보편성의 진작을 위한 것이다. 교회는 각종 다양한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진력하여야 한다. 여기에 보편성과 은사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발견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은사의 궁극적 기능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것이라는 분명한 성경적 증거는 은사를 계속해서 통일성의 관점에서 논의하도록 이끈다. 이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넷째, 이렇게 통일성이 은사를 통해 담보될 때, 은사의 결과는 하나된 교회로서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나타나게 된다. 이제 이 네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교회의 속성과 은사의 관계에 대해서 상술하고자 한다.

4.2 사도성 (apostolicty)

사도 (apostle)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며 그분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룻밤을 기도하신 후 자신의 열 두 제자를 사도로 세우셨는데 (눅 6:13)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 또는 실질적 능력을 부여하셨음을 뜻한다. 이들이 자신의 의지와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세우심을

16) 이에 대한 더욱 자세한 해설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김재성, “교회의 본질과 속성,” 『신학정론』 제 22권 2호 (2004): 514-516.

17) Wolfhart Pannenberg, *Systematic Theology, vol. 3*, trans. Geoffrey W. Bromiley (Grand Rapids: Eerdmans, 1993), 405-415.

18) 이 순서는 개핀이 제시한 은사에 대한 결론적 고찰에서 착안한 것이다. 개핀은 은사에 대한 논의를 벨전 5:5에 근거하여 다양성, 하나님의 구원 은혜의 현현, 봉사적 차원, 그리고 말씀 은사와 행위 은사의 구분으로 나눈바 있는데 이 구분은 각각 은사의 기원, 정의, 역할, 그리고 결과의 네 가지 차원과 상응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기원과 정의의 순서가 맞바뀐 것이다. Gaffin, 『성령 은사론』, 63.

입은 것은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즉 복음 전파와 선교에의 참여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¹⁹⁾ 사도는 선지자와 더불어 교회의 터이며 그리스도는 그 기초이다 (엡 2:20). 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으신 기초위에 교회라는 집을 짓는 것이다.²⁰⁾ 그렇다면 사도는 어떤 권한으로 이런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인가? 먼저 사도는 보내는 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는데 이는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은 사실(마 16:19)에 의해서 상징된다. 그러나 이 권한은 베드로에게 배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권한으로서 이들의 개인적 소유나 소용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이 전권의 의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살전 2:7; 고전 9:12) 온 교회가 이 권위에 순종하도록 요구하고 (고전 14:37; 고후 10:18; 롬 15:18) 가르치는 가운데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사실에서 발견된다 (고전 5:4 14:37; 고후 2:6, 10).²¹⁾ 또한 이는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교회에 부여된 은사를 활용하여 말씀의 토대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가리킨다.²²⁾ 사도들의 권위는 결코 권위주의적이거나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살전 5:12f; 고전 16:11, 18). 교회를 위한 이들의 섬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봉사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도의 직분이 은사로 표현되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로마서 12:3-8과 고린도전서 12:4-28에 나타난 은사의 목록에는 환대, 베푸는 것, 다스리는 것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섬김이 언급되어 있지만 에베소서 4장에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단지 직분으로만 표현되어 있을 뿐 섬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²³⁾

사도의 정의, 사명, 그리고 권위에 근거해서 살펴볼 때 사도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는 세워지고 이들의 가르침은 참된 교회의 척도에 해당된다. 사도적 교회란 사도들의 교훈과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이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그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교회이다.²⁴⁾ 사도성은 교회가 전수받은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논의될 수 없다. 이레니우스는 사도성을 성직 수임의 은혜, 즉 감독과 장로에게 주어지는 특정한 진리의 은사에서 찾았다.²⁵⁾ 이런 이유에서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볼 때 로마 가톨릭이 사도성을 사도직의 계승 또는 인물의 계승 (successio apostolorum sive personae)에서 찾은 것은 올바른 견해가 아니다. 사도성은 오히려 교리의 계승 (successio doctrinae)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²⁶⁾ 근본적 의미에서 베드로의 죽음과 더불어 사도와 그 직분은 사라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진리를 지키고 이에 순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는 사도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사도성이 보존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²⁷⁾ 이러한 사도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 (evangelist)의 직분 (엡 4:11)을 은사의 차원에서 교회에 허락하

19) G. C. Berkouwer, *The Church*, 나용화 · 이승구 옮김, 『개혁주의 교회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261.

20) Clowney, 『교회』, 84.

21) Hans Küng, *Die Kirche*, 정지련 역, 『교회』 (서울: 한들출판사, 2007), 505.

22) J. van Genderen and Velema, W. H., *Beknopte gereformeerde dogmatiek* (Kampen: J. H. Kok, 1992; reprint, 1993), 655.

23) Horton, *The Christian Faith*, 888.

24) Van Genderen and Velema, *Beknopte gereformeerde dogmatiek*, 655.

25) Irenaeus, *Adv. Haer.* IV. xxvi. 21; Clowney, 『교회』, 84.

26) Bavinck, 『개혁교의학 4』, 383-384. 한스 쿡도 '사도적 계승'이라는 표현 대신에 사도성의 내용에 근거한 사도적 파송과 사도적 봉사를 내세우지만 '교리적 계승'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Küng, 『교회』, 508-510.

27) Van Genderen and Velema, *Beknopte gereformeerde dogmatiek*, 654; Clowney, 『교회』, 89.

셨던 것이다.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와 선지자 다음으로 언급되는데 이를 사도와 별개로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종의 교회개혁자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물론 이 직분이 다른 직분을 맡은 자가 다른 직분을 맡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중복의 여지가 있지만 이 사실이 복음 전하는 자가 사도나 선지자의 직분에 종속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²⁸⁾ 사도의 직분은 사라졌지만 사도성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 또한 교회가 존속하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 교회의 사도성은 앞으로 언급될 다른 속성들 (보편성, 통일성, 거룩성)의 유효성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속성이다.²⁹⁾ 왜냐하면 사도성의 토대위에 나머지 속성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참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도성과 은사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가? 칼빈은 히브리서 2:4을 주해하면서 성령의 은사의 분배 (distributio)에 있어서 두 가지 목적을 언급한다.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첫째 목적에 해당된다. 둘째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순종하도록 다스리는 역할이 언급된다.³⁰⁾ 사도의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과 더불어 온 교회가 말씀에 기초하여 든든하게 세워지고 양육 받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다.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함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의 양육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데서 발견된다. 사도가 교회의 기초이며 토대라는 주장에는 (엡 2:20) 그가 교회의 비밀을 맡은 자 (엡 3:5)일 뿐 아니라 이를 전하는 자라는 두 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³¹⁾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이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를 지닌 자들이다 (마 28:20). 사도들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권위에 모든 사람이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은사)로서 교회에 사도를 허락하신 것이며 여기에 사도성의 핵심이 발견된다. 사도성에 있어서 권위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놓여 있다. 칼빈은 로마 가톨릭의 전통이 사도들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밝히면서 로마교회가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권위에 억지로 순종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비판한다: “지금까지 교회를 억압해 온 이 전통의 기원을 사도들에게까지 거꾸로 추적한다는 것은 완전히 속임수일 뿐이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 전체는 다음과 같은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곧, 온갖 지킬 것들을 만들어내어 양심들에 짐을 지워서도 안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인간이 만들어 낸 수단들로 오염시켜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 사도들은 로마교회주의자들이 사도들의 것으로 돌리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 전혀 무관할 뿐 아니라 그런 것들을 들어본 일도 없었다.”³²⁾ 결론적으로,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사도성과 은사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도성이 은사로서의 사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를 진작시키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순종하도록 이끈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28) 길성남,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만물의 통일과 하나님의 새 인류』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5; reprint 2009), 294. Cf) Ridderbos, *Paul*, 391.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의 조력자로 이해된다. 칼빈도 유사한 견해를 취한다. CO 51, 197 (엡 4:11 주석).

29) Küng, 『교회』, 493, 509-510.

30) CO 55, 23. 본문은 사도성에 대한 인증으로서 표적과 기사와 함께 은사를 언급한다. Clowney, 『교회』, 271.

31) John R. W. Stott, *Ephesians: God's New Society*, 박상훈 옮김, 『에베소서 강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8), 148; Clowney, 『교회』, 88.

32)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원광연 역, 『기독교 강요』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4.10.18.

4.3 보편성 (catholicity)

먼저 헬라어 ‘카톨리코스’ (catholikos)는 ‘전체적인,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과 관련된 것을 가리키며 이는 부분적이며 분파적인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다. 안디옥의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감독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회중들이 있게 하라. 이는 마치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 곳은 어디나 보편적 교회가 있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했다.³³⁾ 초대교회가 몬타누스주의, 영지주의, 그리고 아리우스주의 등의 거짓 교훈과 투쟁하게 되었을 때 보편성은 주로 이단과 구분되는 정통교회가 지닌 진리를 강조하고 이를 분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노바투스(Novatus)와 도나투스(Donatus)가 불러일으킨 논쟁에 있어서 어거스틴은 보편적 교회의 지역적 확장에 의미를 부여했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속성을 교회의 가시적 표지로 간주하고 보편성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 많은 회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게 되었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초대교회의 보편성을 상실하였다고 비판하고 초대 보편적 교회와의 연결을 강조하였다. 칼빈은 보편성을 진리와 기독교의 두 가지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첫째, 진리는 신적 교리의 진리, 즉 복음에 관한 모든 진리를 가리킨다.³⁴⁾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온전히 소유하고 거짓된 가르침에서 지키며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전체가 동일한 진리를 공유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동일성과 전체성이 보편성을 구성하는 요소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진리에는 양적이며 가시적인 확장이 포함되지만 보편성이 이것에 의해서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질적이며 비가시적인 요소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 뜻한다. 둘째, 기독교적 차원은 다음과 같은 칼빈의 주장에서 확인된다. “그리스도 자신이 여러 개로 나누어지지 않는 한 여러 개의 교회란 있을 수 없다.”³⁵⁾ 이 주장은 단순히 교회의 통일성에 관한 설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그의 의도는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 나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실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앞서 보편성의 질적 차원과 일치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보편성을 사실상 가시적인 차원으로 국한하여 교회를 법적으로 특정한 장소, 인물, 그리고 제도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 교회에 보편적이라는 명칭이 부합되지 아니한다. 바빙크는 가톨릭 교회가 스스로를 ‘로마’ 가톨릭교회로 명명하는 것 자체가 교회의 보편성에 모순되는 발상이라고 비판한다.³⁶⁾ 그렇다면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보편성은 로마 가톨릭의 그것과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가? 보편성의 특징, 특히 질적 차원에서의 특징은 기독교적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보편적’이라는 표현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엡 1:23; 골 2:10)을 지니고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그를 향해서 자라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엡 3:14-17). 한스 쿡(Hans Küng)도 그리스도의 충만을 보편성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인정한다. “교회가 처음부터 보편적이고, 완전하며, ‘가톨릭’인 것은 아니다. ... 그리스도 자신이 현존할 때에만 교회는 충만해진다.”³⁷⁾ 또한 남아공화국의 개혁신학자 헤인즈(J. A. Heyns)도 이를 다음과 같이 기독교론적으로 규명한다. “만약 우리가 실제로 이 각도에서 보았을 때 교회의 보편성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항상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신다. 교회의 보편성이 이런 방식으로 이해될 때, 그 보편성은 배타적인 개념이다.”³⁸⁾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33) Ignatius of Antioch, "To the Smyrnaeans," in Michael W. Holmes (ed.), *The Apostolic Fathers* (Grand Rapids: Baker, 1956; second ed. 1989), 112-113.

34) Calvin, 『기독교 강요』, 4.1.9.

35) Calvin, 『기독교 강요』, 4.1.2.

36) Bavinck, 『개혁교의학 4』, 382.

37) Küng, 『교회』, 444.

38) J. A. Heyns, *The Church*, trans. D. R. Briggs (Pretoria: N. G. Kerkboekhandel, 1980),

보편적인 동시에 배타적인 복음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행 4:12) 라는 선언에는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복음의 배타적 차원이 드러난다. 기독교는 예수의 진리만을 받아들이고 이를 추구한다는 점에 있어서 배타적이지만 이 배타성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배타성’으로 귀결된다. 그리스도의 배타적 진리가 보편적 복음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는 이제 유대인만을 위한 배타적 종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위한 보편적 종교이다. 칼빈은 갈라디아서 3:28을 주해하면서 교회의 통일성을 언급할 뿐 아니라 구원의 희망이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in solo Christo) 발견된다는 배타적 차원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간주했다.³⁹⁾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 포괄되어 있지만 단지 그 분 안에서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배타적 진리에서 개혁신앙이 추구하는 교회의 보편성의 참된 의미가 발견된다. 한스 쿵은 ‘고루한 배타주의적 개신교와 혼합주의적 로마교 모두를 배격하면서 복음적 가톨릭성 (evangelical catholicity)을 내세운바 있다.⁴⁰⁾ 그가 주장하는 개신교의 고루한 배타성은 무엇인가? 로마 가톨릭과 화합하지 않는 개신교는 배타적 종교이며 거기에 보편성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것이 쿵의 주장의 핵심에 해당된다.⁴¹⁾ 그러나 이는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지닌 전 포괄성 (all-inclusiveness)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빙크는 교회의 보편성은 기독교의 보편성을 전제로 삼는다고 주장한다. 기독교의 보편성에 대한 확신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진리 앞에 만유가 복종해야 한다는 배타성에 대한 그의 신념이 함께 담겨져 있다.⁴²⁾ 그렇다면 개혁신학에 있어서 교회의 보편성은 배타성과 상충되지 아니하며 후자는 전자의 더욱 정확한 개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바빙크에게 보편성은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교리를 교회가 완전하게 지니고 있으며, 몸 또는 영혼에 관한 모든 종류의 죄에 대한 치유책을 제공하고, 모든 덕과 선행, 그리고 모든 영적 은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⁴³⁾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 자세하게 고찰되지 못한 것은 은사와 보편성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보편성과 은사는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에베소서 4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승천과 은사의 상관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 7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사도와 선지자를 위시한 다양한 자들에게 각종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힌다. 이렇게 교회에 은사가 주어진 배경에는 만물을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시편 68:18을 언급한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분이 바로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⁴⁴⁾ 은사는 궁극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까지 자라서 만유되신 그분의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는 목적을 지니고 그리스도 자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리델보스는 에베소서 4:7-16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교회의 충만함 (보편성)을 하나로 묶어 놓은 배경에는 이단에 대한 분별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⁴⁵⁾ 그리스도는 자신의 충만한 능력으로 죽음과 악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시고 이미

136-137. Clowney, 『교회』, 108에서 재인용.

39) CO 50, 223.

40) Küng, 『교회』, 445.

41) Küng, 『교회』, 441-442.

42) Herman Bavinck, “The Catholicity of Christianity and the Church,” *Calvin Theological Journal* 27 (1992): 220, 248-249. 이 글의 원문은 바빙크가 1888년에 캄펜 신학교 학장으로 취임하면서 행했던 연설이다 (각주 2).

43) Bavinck, “The Catholicity of Christianity and the Church,” 221.

44) 길성남,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292.

결정적 승리를 거두셨다 (골 2:15).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께서 최종적 영광중에 재림하시지 않으셨기에 잔존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교회를 지속적으로 공격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런 이유에서 에베소서 6:12에서 에베소 교회는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이다.⁴⁶⁾ 이들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충만함에 대적할 뿐 아니라 교회가 그분의 충만을 향해 자라가는 것, 즉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공격이자 도전에 해당된다. 결론적으로, 은사는 기원에 있어서 승천하시고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충만함에서부터 자신의 영을 통해서 교회에 수여하신 다양한 선물이다. 다양한 은사의 활용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러 보편성을 성취하도록 돕는다. 은사의 기원이 그리스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은사와 교회의 보편성 사이에 긍정적 상호 관계가 확립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에 해당된다.

4.4 통일성 (unity)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교회의 통일성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한 것이다. 종교개혁자 칼빈에게 통일성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가 만물을 채우시는 보편성의 차원 없이는 교회를 포함한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⁴⁷⁾ 통일성은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을 지켜나가야 할 것에 해당된다.⁴⁸⁾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질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칼빈이 강조하는 통일성은 일차적으로 영적 통일성 (spiritual unity)을 가리키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가시적 통일성 (visible unity) 또한 포함한다.⁴⁹⁾ 이런 이유에서 성도의 교제 (sanctorum communio)는 칼빈에게 중요한 개념이며 이는 구체적으로 성도의 연합에 근거한 것이다. 성도의 연합은 성령의 역사에 기인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교회에 완전함을 제공한다.⁵⁰⁾ 성령의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개별적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듯이, 성령은 이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로 묶는다. 이러한 연합은 세례를 통해서 상징되고 (고전 12:13; 엡 4:5),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현실화된다. 왜냐하면 성령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자들에게 허락하실 뿐 아니라 이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⁵¹⁾ 은사는 교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다양하게 주어지는데 이 다양한 은사들은 개별 구성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상호간에 나누어져야 한다는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⁵²⁾ 그렇다면 통일성과 은사의 관계는 어떻게 규명될 수 있을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통일성은 은사의 다양성을 인식하며 서로에게 배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감으로서 확인된다. 즉 통일성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사는 이를 유지

45) H. Berkhof, *De katholiciteit der Kerk* (Nijkerk: G. F. Callenbach, 1962), 61ff; Herman Ridderbos,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trans. John Richard De Witt (Grand Rapids: Eerdmans, 1975; reprint, 1992), 391.

46) Ridderbos, *Paul*, 391-392.

47) 이런 이유에서 칼빈에게 보편성과 통일성은 자신의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함께 논의된다. I. John Hesselink, "Calvinus Oecumenicus," In *The Unity of the Church: A Theological State of the Art and Beyond*, edited by Eduardus Van der Borgh (Leiden/Boston: Brill, 2005), 72-74.

48) CO 51, 191 (엡 4:4 주석); Otto Weber,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서울: 풍만출판사, 1985), 196.

49) Calvin, 『기독교 강요』, 4.1.7.

50) CO 47, 387 (요 17:21 주석).

51) CO 49, 498 (고전 12:4 주석).

52) Calvin, 『기독교 강요』, 4.1.3.

지하는 것이다.⁵³⁾ 이 속성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므로 칼빈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며 비가시적 교회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⁵⁴⁾ 그러나 통일성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현실에 속한 가시적 교회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교제는 먼저 사도적 가르침, 즉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가르침 또는 교리를 근거로 하는 성도의 '형제적 교제의 끈 (vinculum fraternae communicationis)'에 해당된다 (행 2:42).⁵⁵⁾ 또한 이 교제를 통해서 신자들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뜻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게 된다 (빌 2:1-2). 사도행전 2:42에 언급된 교제는 구체적, 현실적, 실질적인 것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며 물질적 복을 함께 나누는 것을 뜻한다. '교제'로 번역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 (고후 8:4; 9:13)는 헌금을 뜻하기도 하는데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또한 다른 사람으로 제공받는다는 상호성 (mutuality)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⁵⁶⁾ 은사는 교회에서 이러한 상호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탁월한 수단 또는 도구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은사를 받기 때문이며 은사에 있어서 자기 충족성 (self-sufficiency)은 철저히 배제되며 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e)이 강조된다.⁵⁷⁾ 상호성과 상호의존성은 교회를 세운다는 은사의 본질적 목적의 성취를 위한 것이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됨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1:14)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2:46) 결과, 이들은 실제로 하나가 되었다 (행 4:32)는 표현들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⁵⁸⁾ 교회의 질서는 상호성의 원리에 의해서 세워지는데 클라우니는 이러한 은사의 상호성을 질서의 으뜸원리로서 이해한다.⁵⁹⁾ 은사를 통해서 신자들 상호간의 사랑이 확인되므로 교회의 상호성은 은사의 상호성을 떠나서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즉 상호성은 섬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상호의존성과 관련된다. 성령의 은사를 통한 섬김은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임과 동시에 또한 신자들 상호간에 섬김으로 나타난다. 은사는 이러한 섬김을 위해 신자들을 준비시키며 (equip) 그 결과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edify) 궁극적 목적이 성취될 수 있다 (고전 12:31).⁶⁰⁾ 은사가 특정한 한 사람에게 모두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교회에서 섬기고 순종하는 겸손한 태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벧전 5:5).⁶¹⁾ 은사를 통해서 다양한 은혜가 주어진 것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공통적 필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교회의 하나됨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은사의 다양성은 통일성을 방해하지도 분열시키는 것도 아니며 교회를 하나로 모으는데 활용되는 도구이다. 은사를 서로 나누는 행위 (diarisis, 고전 12:4, 11)는 교회를 나누고 분열시키는 행위 (hairesis, 고전 11:9)와 정반대

53) Clowney, 『교회』, 93.

54) Calvin, 『기독교 강요』, 4.1.3.

55) CO 48, 58 (행 2:42 주석). Cf) 1539년에 작성된 <사도레토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칼빈은 진리를 연합의 끈 (vinculum unitatis)이라고 불렀다. CO 5, 393, 410.

56) John R. W. Stott, *The Message of Acts, The Bible Speaks Today* (Leicester/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4), 83.

57) Miroslav Volf, *After Our Likeness: The Church as the Image of the Trinity* (Grand Rapids: Eerdmans, 1998), 231.

58) 유해무, 『개혁교의학: 송영으로서의 신학』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reprint, 2000), 554-555.

59) Clowney, 『교회』, 230. 칼빈은 행 2:42에 언급된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를 교회의 질서가 올바르게 유지된 상태에 대한 해설로 간주한다. CO 48, 58.

60) Ridderbos, *Paul*, 442.

61) 김요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칼빈의 교회제도 제안의 신학적 기초," 『개혁논총』 제 15 권 (2010): 200.

의 의미를 지닌다.⁶²⁾ 요약하자면, 은사는 교회의 통일성을 지향하고 바로 여기에 교회를 위한 은사의 기능이 발견된다고 볼 수 있다.

4.5 거룩성 (holiness)

교회의 거룩성은 선물과 과제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⁶³⁾ 첫째, 거룩성은 거룩의 주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선물이다. 거룩성의 외연적 모습은 세상을 멀리하고 이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하고 그의 거룩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질적으로 이는 인간의 자질이나 노력으로 획득 불가능한 것이며 단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 하나님의 성화 사역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벧전 2:9, 10; 엡 5:25-27; 히 10:10; 엡 2:20, 21; 벧전 1:2). 교회의 회원이 성도로 불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인해 실제로 거룩함을 지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새롭게 지음 받은 피조물 (고후 5:17)은 객관적 거룩함을 지닌 존재이다.⁶⁴⁾

둘째, 교회의 거룩성은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는 것인데 이는 양육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며 현실화된다. 이러한 거룩성은 그 자체로서 완전함 또는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을 향한 성장을 가리킨다. 칼빈은 교회를 정의하면서 양육의 차원을 어머니라는 모티브를 도입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속으로 모으셔서 유아와 어린 아이의 상태에 있는 동안 교회의 도움과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기르실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이 장성하여 마침내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기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을 통하여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⁶⁵⁾ 이러한 양육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가장 탁월한 수단은 말씀의 사역이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회집될 뿐 아니라 이를 통해서 거룩함을 향하여 자라가게 된다.⁶⁶⁾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통치하시는 방편 (economia)인 말씀의 선포와 양육을 통해 교회는 최종적 완성을 누릴 수 있다고 칼빈은 밝히는데 이 최종적 완성이 곧 교회가 추구해야 할 거룩성에 해당된다.⁶⁷⁾ 칼빈은 교회의 여러 직분 가운데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으로 인정한다. 직분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에베소서 4장은 칼빈은 이를 은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오토 베버 (Otto Web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칼빈에게 “직분과 은사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직분은 은사를 바탕으로 하여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⁶⁸⁾ 직분에 대한 이러한 은사적 이해는 양육의 성격을 지닌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교회는 양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야 한다 (엡 4:13, 15). 양육을 통한 성장은 거룩을 향한 성장이며 이는 성도들의 완전을 위한 것이다. 에베소서 4:12에 언급된 ‘온전함

62) Clowney, 『교회』, 92-93, 229.

63) Van Genderen and Velema, *Beknopte gereformeerde dogmatiek*, 654.

64) Berkouwer, 『개혁주의 교회론』, 393f.

65) Calvin, 『기독교 강요』, 4.1.1.

66) Calvin, 『기독교 강요』, 3.24.8; 4.1.5.

67) CO 51, 196 (엡 4:10 주석).

68) Weber, 『칼빈의 교회관』, 71, 73. 다른 곳에서 그는 양자의 상관관계를 더욱 중시하여 은사 없이 직분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Otto Weber, *Foundations of Dogmatics*, vol. 2, trans. Darrell L. Guder (Grand Rapids: Eerdmans, 1983), 577; Gaffin, 『성령은사론』, 60-61. 은사와 직분의 관계는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Dunn,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566-571.

(katartismos)'은 교회의 거룩성을 또 다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용어로서 칼빈이 사용했던 성도의 완전함 (perfectio)이라는 개념과 유사한 것이다. 이는 사물의 균형 (symmetria)과 비례 (proportio)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성도들 간의 합당하고 질서있는 화합에서 비롯되는 완전함을 가리킨다.⁶⁹⁾ 이러한 완전함에는 성도들 상호간의 교제를 위한 올바른 은사 사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은사의 올바른 사용에 근거한 성도들의 하나됨은 구체적으로 궁극적 완전함의 의미를 지닌 거룩함으로 나타난다. 즉 은사가 올바르게 사용된 결과로서 교회의 거룩성은 더욱 진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상의 모든 교회는 고린도교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의 죄악으로 인해 투쟁중인 교회 (ecclesia militans)이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결코 거룩함과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한다. 따라서 교회는 은사를 활용하여 상호간에 권면하고 심지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하는 징계를 행하는 가운데 거룩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⁷⁰⁾ 교회는 늘 세속적이며 위선적 삶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 교회의 거룩성은 세속주의 (worldliness)와 율법주의 (legalization)의 위험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은사의 올바른 사용에서 비롯되는 결과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은사의 기능이 올바로 발휘되어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고 이를 증대시켜 나갈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되신 그분을 향해 자라가게 되며 그의 완전함을 지향하게 되는데 여기에 교회가 추구해야 할 과제로서의 거룩성의 의미가 발견된다.

5. 맺는 말

본 논문은 교회의 속성과 은사의 관계를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조망하였다. 특히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의 은사에 대한 이해는 지나치게 가시적 은사에 집중하는 일방성을 드러내는 반면에 개혁신학의 은사 이해는 칼빈 이후로 사실상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은사에 대한 개혁신학적 이해를 진작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교회의 속성을 은사의 차원에서 고찰하는 가운데 양자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규명하려는 시도이었다. 이를 위해서 은사의 정의, 기원, 역할, 그리고 결과라는 관점에서 속성에 대한 논의의 순서를 사도성, 보편성, 통일성, 그리고 거룩성으로 정하였다. 첫째, 구원의 진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주어졌으며 사도성은 여기에서 비롯되는 교회의 속성이다. 은사의 넓은 정의가 일차적으로 구원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면, 은사는 구원의 진리의 보전과 관계되는 사도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사도성은 은사의 정의와 관련된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보편성은 은사의 기원과 관계된 것이다. 은사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편성의 차원에서 교회에 허락하신 선물이다. 따라서 교회의 보편성의 기원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편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교회에 다양한 은사가 주어진 이유는 선교와 복음전파에 이를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편성을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성은 은사의 궁극적 기능에 관한 것인데 은사가 올바르게 사용될 경우 이는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도구 또는 수단에 해당된다. 은사의 다양성은 성도들의 개인적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건덕을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교회의 통일성이 확인되고 증진된다. 넷째, 거룩성은 은사의 결과에 관한 것인데 교회는 은사를 통해 하나됨을 확인할 뿐 아니라 머리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는 거룩함을 경험하게 된다. 거룩함은 은사가 올바르게 활용될 때 나타나는 결과에 해당된다.

69) CO 51, 198-199 (엡 4:12 주석).

70) Clowney, 『교회』, 103.

참고문헌

- 길성남.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만물의 통일과 하나님의 새 인류』, 서울: 성서유니온 선교회, 2005.
- 김요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칼빈의 교회 제도 제안의 신학적 기초,” 「개혁논총」 제 15권 (2010): 193-225.
- 김재성. “교회의 본질과 속성,” 「신학정론」 제 22권 2호 (2004): 511-556.
- 유해무. 『개혁교의학: 송영으로서의 신학』,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 이신열. “칼빈의 은사 이해,” 「성경과 신학」 제 53 권 (2010): 79-107.
- . “부에 대한 칼빈의 이해,” 「갱신과 부흥」 제 15 호 (2015): 79-107.
- Bavinck, Herman. *Gereformeerde dogmatiek IV*, 박태현 역, 『개혁교의학 4』.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 . “The Catholicity of Christianity and the Church,” *Calvin Theological Journal* 27 (1992): 220-251.
- Berkhof, H. *De katholiciteit der Kerk*. Nijkerk: G. F. Callenbach, 1962.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권수경 · 이상원 옮김, 『조직신학』.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 Berkouwer, G. C. *The Church*, 나용화 · 이승구 옮김, 『개혁주의 교회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 Bittlinger, Arnold. *Gifts and Graces*, 정인찬 · 조원길 공역, 『은사와 은혜』. 서울: 기독지혜사, 1982.
- Calvin, Joh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원광연 역, 『기독교 강요』.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 .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59 vols. Edited by Wilhelm Baum, Eduard Cunitz & Eduard Reuss. Brunsvigae: C. A. Schwetschke, 1859-1900.
- Clowney, Edmund P. *The Church*, 황영철 옮김, 『교회』.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8.
- Dunn, James D. G.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Grand Rapids: Eerdmans, 1998.
- Ferguson, Sinclair. *The Holy Spirit, Contours of Christian Theology*.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96.
- Gaffin, Jr., Richard B. *Perspectives on Pentecost*, 권성수 역, 『성령 은사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Grudem, Wayne A. *The Gift of Prophecy in the New Testament and Today*. Westchester, IL: Crossway, 1988.
- Hesselink, I. John. Calvinus Oecumenicus,” In *The Unity of the Church: A Theological State of the Art and Beyond*. Edited by Eduardus Van der Borght. Leiden/Boston: Brill, 2005, 69-93.
- Hoekema, Anthony A. *Saved by Grace*, 류호준 역, 『개혁주의 구원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 Horton, Michael. *The Christian Faith: A Systematic Theology for Pilgrim's on the Way*. Grand Rapids: Zondervan, 2011.
- Ignatius of Antioch, "To the Smyrnaeans," In *he Apostolic Fathers*. Edited by Michael Holmes. Grand Rapids: Baker, 1956.
- Kamphuis, Barend. "Herman Bavinck on Catholicity," *Mid-America Journal of Theology* 24 (2013): 97-104.
- Krusche, Werner.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7.
- Küng, Hans. *Die Kirche*, 정지련 역, 『교회』. 서울: 한들출판사, 2007.
- MacLeod, Donald. *The Spirit of Promise*, 지상우 역, 『성령세례와 개혁주의 성령론』. 서울: 여수론, 1988.
- Miner, Paul S. *Images of the Church in the New Testament*.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 Panneberg, Wolfhart. *Systematic Theology, vol. 3*. Translated by Geoffrey W. Bromiley, Grand Rapids: Eerdmans, 1993.
- Ridderbos, Herman.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Translated by John Richard De Witt. Grand Rapids: Eerdmans, 1975.
- Stott, John R. W. *The Message of Acts, The Bible Speaks Today*. Leicester/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4.
- Sweetman, Jr., Leonard. "The Gifts of the Spirit: A Study of Calvin's Comments on I Corinthians 12:8-10, 28; Romans 12:6-8; Ephesians 4:11," in *Exploring the Heritage of John Calvin: Essays in Honor of John Bratt*, Edited by David E. Holwerda.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6, 273-303.
- Thiselton, Anthony C. *The Holy Spirit - In Biblical Teaching, through the Centuries, and Today*. Grand Rapids: Eerdmans, 2013.
- Turner, Max. *The Holy Spirit and Spiritual Gifts: Then and Now*. Carlisle: Paternoster, 1996.
- Van Genderen, J. and Velema, W. H. *Beknopte gereformeerde dogmatiek*. Kampen: J. H. Kok, 1992.
- Volf, Miroslav. *After Our Likeness: The Church as the Image of the Trinity*, Grand Rapids: Eerdmans, 1998.
- Weber, Otto. *Foundations of Dogmatics, vol. 2*. Translated by Darrell L. Guder. Grand Rapids: Eerdmans, 1983.
- .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서울: 풍만출판사, 1985.